

### 300인 이상 영화관 ‘수화 피난안내’ 상영 의무화

2020년 소방청 달라지는 것



앞으로 객석 300인 이상의 영화관은 장애인을 위한 수화 피난안내를 반드시 상영해야 한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부터 달라지는 것’을 30일 발표했다.

소방청은 영화상영관 피난안내 영상물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을 상영해 재난약자의 피난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청각장애인 위한 수어·자막 등 상영해 피난기본권 보장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내년 4월22일부터 시행

구상이다.

현재 피난안내 영상물은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로만 작성됐는데, 내년부터는 300석 이상 영화관의 경우 피난 안내 영상물에 광고를 최소화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을 추가해 상영해야 한다.

또한 피난 안내 영상물에 자막 내용과 속도를 청각장애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해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는 구상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국 영화상영관 현황은 2017년 기준 극장 수는 452개(스크린수 2766개, 좌석수 43만7782개)이며, 이중 총 객석 수가 300석 이

상인 영화관은 405개다.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지난 4월 개정됐고, 1년의 경과기간을 거친 뒤 내년 4월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합격자 결정 기준을 강화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현행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합격이었는데 커트라인을 높여, 전과목 평균 70점이 넘어야 합격하게 된다. 이는 2020년 1월1일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더 나아가 소방청은 고장난 소방시설 수리 및 보수 기간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시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개정내용은 내년 하반기인 8월1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도 확대한다. ‘셀프점검’으로 인한 부실점검을 해소하기 위해 중전에는 아파트 11층 이상만 해당됐던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점검을, 층수와 관계없이 모든 아파트로 확대했다. 개정 내용은 2020년 8월14일부터 적용된다.

이밖에도 소방청은 키즈카페, 방탈출카페 등 신종업종에 대한 화재위험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방탈출카페 등은 최근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나오는 등 화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화재위험평가대상에 신종업종이 포함이 되지 않아 화재평가가 실시되지 않았는데, 위험성이 있는 신종업종의 경우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모레퍼시픽 장애인사업장

위드림, ‘올해의 편한 일터상’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자회사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위드림’이 ‘올해의 편한 일터’ 최우수상인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오산 아모레 뷰티 파크에 위치한 위드림은 장애인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별도의 화장품 포장 공간과 전용 작업기구를 구비하고, 턱 없는 출입구·전용 엘리베이터·휴게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기존에 제품 포장 업무에 머물렀던 직무를 헬스 키퍼·스팀 세차 서비스까지 확대하는 등 장애인 유형별로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해 시행하고 있다.

이정열 위드림 대표이사는 “장애는 결코 단점이 될 수 없다”면서 “아모레퍼시픽은 장애를 가진 직원들의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은 물론 이들과 함께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바꾸는 여정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군 청계면 낙타표천수돌침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돌침대 기탁

무안군 청계면 낙타표천수돌침대(대표 조형식)는 지난 17일 주위의 어려운 저소득층 2가구에 총 140만원 상당의 돌침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낙타표천수돌침대 조형식 대표는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을 맞아 약속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원을 결정하게 됐다.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 곡성군, 노인일자리 참여자 마음 모은 따뜻한 기부

평균 85세 · 250명의 마음 모은 기부로 지역사회 훈훈

곡성군은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이 작지만 따뜻한 나눔의 마음으로 연말연시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곡성군에 따르면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250명이 그동안 사업에 참여하면서 받았던 급여 중 일부를 모금해 총 137만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번 기부 참여자들의 연령을 평균내보면 85세에 달한다. 이들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노인일 자리에 참여해왔다. 그리고 본인도

너적하지 않은 형편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본인의 생활자금을 기꺼이 기부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이들의 기부에 “작은 기부가 연말연시를 큰 행복으로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곡성시니어클럽은 곡성군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꿈나무 지원사업(초, 중, 고등학교 봉사지원), 영농사업 및 주전부리(분식점)매장운영,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시설 지원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영암군의회, 연말 맞이하여 복지시설 위문

사랑의집 · 효요양원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 · 위문품 전달

영암군의회(의장 조정기)는 26일 연말을 맞아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따뜻한 손길을 전했다.

조정기 의장은 영암군 소재 사랑의집과 영암 효요양원을 방문해 시설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조 의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사회 약자와 소외계층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영암군의회는 2020년에도 이웃사랑 실천을 통해 훈훈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적극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현재 영암군 지체장애인 협회 후원회장으로 다양한 봉사 활동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기초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제5회 대한민국 행복나눔 봉사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야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

Drawing 이호동